

회계학개론

※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단,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(年)이자율이며,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.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.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.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.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.

1.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.
-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,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③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,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.
-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,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,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.
- 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,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.

2. (주)세무의 20×1년도 재무제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. 20×1년도 (주)세무의 상품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액은?

기초매출채권	₩40,000	기말매출채권	₩50,000
기초상품재고액	30,000	기말상품재고액	28,000
기초매입채무	19,000	기말매입채무	20,000
기초선수금	20,000	기말선수금	15,000
기초선급금	10,000	기말선급금	5,000
매출액	400,000	매출원가	240,000
환율변동이익*	4,000		
* 환율변동이익은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만 발생함			

- ① ₩222,000 ② ₩228,000 ③ ₩236,000 ④ ₩240,000 ⑤ ₩248,000

3.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.
- ②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.
- ③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,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④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,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.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.
- 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.

4. (주)세무리스는 (주)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, 20×2년 10월 1일 생산설비(취득원가 ₩800,000, 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)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. 리스기간은 3년이고,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. (주)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, 동 거래가 20×2년 (주)세무리스와 (주)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?(단,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,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.)

일자	리스료
20×3년 9월 30일	₩100,000
20×4년 9월 30일	120,000
20×5년 9월 30일	140,000

- | | <u>(주)세무리스</u> | <u>(주)한국</u>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| ₩5,000 증가 | ₩25,000 감소 |
| ② | ₩10,000 증가 | ₩30,000 감소 |
| ③ | ₩25,000 증가 | ₩25,000 감소 |
| ④ | ₩30,000 증가 | ₩30,000 감소 |
| ⑤ | ₩30,000 증가 | ₩50,000 감소 |

5. (주)세무는 20×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.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, 20×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. (주)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,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×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×3년 매출원가와 20×3년 기말이익잉여금은?

	20×1년	20×2년	20×3년
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	₩10,000	₩11,000	₩12,000
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	12,000	14,000	16,000
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	₩50,000	₩60,000	₩70,000
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	100,000	300,000	600,000

- | | <u>매출원가</u> | <u>기말이익잉여금</u> | | <u>매출원가</u> | <u>기말이익잉여금</u>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| ₩61,000 | ₩607,000 | ② | ₩61,000 | ₩604,000 |
| ③ | ₩69,000 | ₩599,000 | ④ | ₩69,000 | ₩604,000 |
| ⑤ | ₩71,000 | ₩599,000 | | | |

6. (주)세무는 20×3년 1월 1일 종업원 4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 부여하였다.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향후 3년 동안 (주)세무에 근무해야 가득된다. 20×3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₩300으로 추정되었으며, 행사가격은 단위당 ₩600이다.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퇴직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.

연도 말	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	실제 퇴직자	추가 퇴직 예상자
20×3	₩300	2명	6명
20×4	400	4	2
20×5	500	1	-

20×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%가 행사되어 (주)세무가 주식(단위당 액면금액 ₩500)을 교부하였다면,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?

- ① ₩66,000 ② ₩198,000 ③ ₩264,000 ④ ₩330,000 ⑤ ₩396,000

7. (주)세무리스는 20×1년 1월 1일에 (주)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.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- 리스자산 :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100,000, 정액법 감가상각
- 리스기간 : 리스기간개시일(20×1년 1월 1일)부터 5년
- 연간리스료 : 매년 12월 31일 지급
- 리스개설직접원가 : (주)세무리스와 (주)한국 모두 없음
- 내재이자율 : 연 10%, (주)한국은 (주)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
- (주)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₩19,016,090(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)을 인식함
- (주)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₩18,991,254를 인식함
- 특약사항 :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, (주)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 잔존가치 ₩100,000 중 일부를 보증함

(주)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? (단, 기간 5년, 할인율 연 10%일 때, 단위금액 ₩1의 현재가치 계수는 0.6209, 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 계수는 3.7908이다.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
- ① ₩18,955 ② ₩40,000 ③ ₩60,000 ④ ₩81,045 ⑤ ₩100,000

8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(주)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₩927,910에 취득하였다.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₩1,000,000, 표시이자율은 연 10%(매년 말 지급)이며,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%이었다. 20×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₩990,000이며, (주)세무는 20×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₩1,020,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. (주)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.)

-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₩990,000으로 동일하다.
-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당기순이익은 ₩162,090 증가한다.
-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.
-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2년 당기순이익은 ₩30,000 증가한다.
-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, 20×2년 당기순이익은 ₩75,741 증가한다.

9.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.
- ② 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'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'와 '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'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.
- ④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.
- 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.

10.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. 이때,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.
- ②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.
- ③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그 외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.
- ④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,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.
- 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.

11. (주)세무의 20×6년 당기순이익은 ₩2,450,000이며,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,800주이다. 20×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.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₩40,000이며,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₩60,000이다. (주)세무의 20×6년 기본주당순이익은? (단,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.)

- ① ₩1,167 ② ₩1,225 ③ ₩1,250 ④ ₩1,289 ⑤ ₩1,321

12. (주)세무는 (주)한국이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20×6년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.

액면금액	₩1,000,000	발행일	20×6년 7월 1일
표시이자율	연 8%	만기일	20×9년 6월 30일
발행일 유효이자율	연 10%	이자지급일	매년 6월 30일

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도 포함되어 있으며,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%이다. 동 거래와 관련하여 (주)세무가 20×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×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? (단, 이자는 월할계산한다.)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8%	10%	8%	10%
1	0.9259	0.9091	0.9259	0.9091
2	0.8573	0.8264	1.7833	1.7355
3	0.7938	0.7513	2.5771	2.4869

- ① ₩981,521 ② ₩977,765 ③ ₩990,765 ④ ₩1,020,000 ⑤ ₩1,023,756

13. 20×5년에 설립한 (주)세무는 (주)한국과 건설기간 3년, 계약금액 ₩1,000,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×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. (주)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,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.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가 20×6년과 20×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? (단,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)

	20×5년	20×6년	20×7년
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	₩90,000	₩100,000	₩50,000
기말 미사용 건설자재	10,000	40,000	40,000
당기 건설노무원가	120,000	140,000	250,000
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	10,000	12,000	18,000
추정총계약원가	700,000	720,000	-

- 20×6년 20×7년 20×6년 20×7년 20×6년 20×7년
 ① ₩74,111 ₩69,222 ② ₩74,111 ₩85,889 ③ ₩78,000 ₩82,000
 ④ ₩78,000 ₩84,000 ⑤ ₩78,000 ₩85,889

14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₩100,000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)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(매년 말 재평가)을 적용하기로 하였다.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.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공정가치의 하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.)

연도	20×1년 말	20×2년 말	20×3년 말
공정가치	₩100,000	₩63,000	₩39,000

- ① 20×2년도 감가상각비는 ₩25,000이다.
- ② 동 거래로 인한 20×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₩(-)20,000이다.
- ③ 20×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₩0이다.
- ④ 20×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₩3,000이다.
- ⑤ 동 거래로 인한 20×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₩(-)21,000이다.

15.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.
- ②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.
- ③ 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.
- ④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,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.
- 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,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.

16.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.
-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(자기지분상품)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.
- ③ 기존 차입자와 대역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.
- ④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.
- ⑤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.

17. (주)세무는 20×3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, 판매한 제품 중 5%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 (주)세무는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. 해당 보증비용은 20×3년 말과 20×4년 말에 각각 ₩1,200과 ₩1,500으로 추정되었다.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20×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? (단,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 지출로 이루어진다.)

연도	판매량	보증비용 지출액
20×3년	600개	₩15,000
20×4년	800개	₩17,000(전기 판매분) ₩30,000(당기 판매분)

- ① ₩26,000 ② ₩30,000 ③ ₩34,000 ④ ₩37,500 ⑤ ₩40,500

18. 20×1년 말 (주)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20×1년 말 (주)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? (단,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.)

(1) (주)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

- 소액현금: ₩100,000
-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: ₩200,000
- 수입인지: ₩100,000
- 양도성예금증서(만기 20×2년 5월 31일): ₩200,000
- 타인발행당좌수표: ₩100,000
- 우표: ₩100,000
- 차용증서: ₩300,000
-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: ₩700,000

(2) (주)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

- 은행이 (주)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: ₩50,000
- 은행이 (주)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: ₩100,000
- (주)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: ₩200,000
-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: ₩300,000

- ① ₩1,050,000 ② ₩1,200,000 ③ ₩1,300,000 ④ ₩1,350,000 ⑤ ₩1,400,000

19. ㈜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₩1,200,000, 표시이자율 연 5%,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(매년 말에 액면금액 ₩400,0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)를 발행하였다. 20×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? (단,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%,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,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.)

기간	단일금액 ₩1의 현재가치		정상연금 ₩1의 현재가치	
	5%	6%	5%	6%
1	0.9524	0.9434	0.9524	0.9434
2	0.9070	0.8900	1.8594	1.8334
3	0.8638	0.8396	2.7232	2.6730

- ① ₩678,196 ② ₩778,196 ③ ₩788,888 ④ ₩795,888 ⑤ ₩800,000

20. 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,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.
- ②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,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(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)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.
- ③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.
- ④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.
- 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.

21. ㈜세무는 20×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(취득원가 ₩2,000,000, 잔존가치 ₩0, 내용연수 4년, 공정가치모형 적용)을 구입하였다. 20×2년 7월 1일부터 ㈜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. ㈜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(잔존가치 ₩0)하며,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.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, 동 거래가 20×2년도 ㈜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 (단,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.)

구 분	20×1년 말	20×2년 7월 1일	20×2년 말
공정가치	₩2,200,000	₩2,400,000	₩2,500,000

- ① ₩480,000 감소 ② ₩280,000 감소 ③ ₩200,000 증가
④ ₩300,000 증가 ⑤ ₩580,000 증가

22.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 보다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.
-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③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,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④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,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.

23. (주)세무의 20×1년 기초재고자산은 ₩200,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₩1,000,000이다. (주)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, 20×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₩300,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. 추가 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, (주)세무의 20×1년 매출원가는? (단,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.)

- 20×1년 6월 1일에 (주)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(원가 ₩120,000) 중 원가 ₩20,000이 판매되었고, 나머지는 기말 현재 (주)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.
- 20×1년 12월 21일에 (주)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(송장가격: ₩60,000)이 20×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. 이 상품은 20×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.
- 20×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(원가 ₩50,000)을 (주)대한에 판매·인도하였다.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×2년 1월 10일까지이다.

- ① ₩690,000 ② ₩770,000 ③ ₩790,000 ④ ₩870,000 ⑤ ₩890,000

24. (주)세무는 20×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₩1,000,000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감가상각, 원가모형적용)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.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,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. 동 거래가 20×3년도 (주)세무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?

구 분	20×1년 말	20×2년 말	20×3년 말
회수가능액	₩700,000	₩420,000	₩580,000

- ① ₩120,000 감소 ② ₩20,000 감소 ③ ₩20,000 증가
 ④ ₩120,000 증가 ⑤ ₩160,000 증가

25. (주)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.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. 20×1년은 연구단계이고, 20×2년은 개발단계(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)에 속하는데, 20×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. 무형자산(개발비)은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 상각(월할상각)하며, 원가모형을 적용한다. 20×2년 12월 31일 무형자산(개발비)의 장부금액은?

내역	20×1년 1월 1일 ~ 20×1년 12월 31일	20×2년 1월 1일 ~ 20×2년 6월 30일
연구원 급여	₩40,000	₩30,000
시험용 원재료 사용액	25,000	20,000
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	10,000	5,000
차입원가	5,000	5,000

- ① ₩49,500 ② ₩50,000 ③ ₩54,000 ④ ₩55,000 ⑤ ₩60,000

26. (주)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·판매하며,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,000단위이다. (주)세무는 현재 제품A 7,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₩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. 최근 (주)세무는 (주)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격 ₩350에 제품A 3,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. (주)한국의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,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.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₩80,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₩120,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₩0이며,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.

조업도 수준	총제조간접원가
최대생산능력의 55%	₩1,755,000
최대생산능력의 65%	1,865,000
최대생산능력의 75%	1,975,000
최대생산능력의 80%	2,030,000

(주)세무가 (주)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,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? (단,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.)

- ① ₩30,000 감소 ② ₩45,000 감소 ③ ₩75,000 증가
④ ₩90,000 증가 ⑤ ₩120,000 증가

27. (주)세무는 제품A(공헌이익률 50%)와 제품B(공헌이익률 30%) 두 제품만을 생산·판매하는데, 두 제품 간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. (주)세무의 20×1년 매출액 총액은 ₩7,000,000, 총고정비는 ₩1,750,000으로 예측하고 있으며, 예상 영업이익은 ₩700,000으로 설정하였다. (주)세무가 20×1년의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액은?

- | <u>제품A</u> | <u>제품B</u> | <u>제품A</u> | <u>제품B</u>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₩700,000 | ₩6,300,000 | ② ₩840,000 | ₩6,160,000 |
| ③ ₩1,750,000 | ₩5,250,000 | ④ ₩2,800,000 | ₩4,200,000 |
| ⑤ ₩3,150,000 | ₩3,850,000 | | |

28. (주)세무는 20×1년에 제품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. 제품A의 20×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며, 기초 및 기말재고품은 없다. 제품A는 노동집약적 방법 또는 자본집약적 방법으로 생산 가능하며, 생산방법에 따라 품질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다. 각 생산방법에 의한 예상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.

	<u>노동집약적 생산방법</u>	<u>자본집약적 생산방법</u>
단위당 변동제조원가	₩300	₩250
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	₩2,100,000	₩3,100,000

(주)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₩600으로 책정하고,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₩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₩1,400,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 (주)세무가 20×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(A)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(B)은 각각 얼마인가?

- | <u>(A)</u> | <u>(B)</u> | <u>(A)</u> | <u>(B)</u> | <u>(A)</u> | <u>(B)</u>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8,400단위 | 20,000단위 | ② 10,000단위 | 15,000단위 | ③ 10,000단위 | 20,000단위 |
| ④ 14,000단위 | 15,000단위 | ⑤ 14,000단위 | 20,000단위 | | |

29. (주)세무는 전부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제품A를 생산·판매하며, 재고자산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. 20×1년 제품A의 생산·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수량	재고금액
기초제품	1,500단위	₩100,000(고정제조간접원가 ₩45,000 포함)
당기완성품	24,000단위	
당기판매	23,500단위	
기말제품	2,000단위	₩150,000(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)

20×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, 고정제조간접원가는 ₩840,000, 고정판매관리비는 ₩675,000이다. (주)세무의 20×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₩745,000일 경우,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?

	영업이익	기말제품재고액		영업이익	기말제품재고액
①	₩710,000	₩80,000	②	₩710,000	₩90,000
③	₩720,000	₩80,000	④	₩720,000	₩90,000
⑤	₩730,000	₩90,000			

30. (주)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,000단위이며, 20×1년에 제품A를 45,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.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(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)되며,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. 20×1년 초 실제재고와 20×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.

	20×1년 초	20×1년 말
원재료	4,000kg	5,000kg
재공품	1,500단위(완성도 60%)	1,800단위(완성도 30%)
제 품	1,200단위	1,400단위

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, (주)세무가 20×1년에 구입해야 하는 원재료(kg)는?

- ① 180,000kg ② 182,000kg ③ 183,000kg ④ 184,000kg ⑤ 185,600kg

31. 원가-조업도-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.)

- ① 계단원가(준고정비)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(구간 수)만큼 존재한다.
 ②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.
 ③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.
 ④ 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.
 ⑤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.

32. ㈜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. 20×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₩787,500이 발생되었고, 기계시간당 ₩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₩37,500만큼 과대배부되었다. 20×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%인 경우, ㈜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?

- ① ₩715,000 ② ₩725,000 ③ ₩750,000 ④ ₩800,000 ⑤ ₩825,000

33. ㈜세무의 20×1년 5월 중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	5월 1일	5월 31일
재 공 품	₩30,000	₩25,000
제 품	20,000	10,000

5월 중 기초원가(prime cost)는 ₩325,000이고, 가공원가(conversion cost)가 직접재료원가의 40%이며, 제조간접원가는 ₩25,000이다. ㈜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?

- ① ₩320,000 ② ₩345,000 ③ ₩350,000 ④ ₩360,000 ⑤ ₩365,000

34. ㈜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·판매하고 있으며,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.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구 분	제품A	제품B
판매가격	₩200,000	₩240,000
직접재료원가	85,000	95,000
직접노무원가	10,000	10,000
변동제조간접원가(기계시간당 ₩5,000)	20,000	30,000
변동판매관리비	5,000	15,000
고정제조간접원가	15,000	25,000
고정판매관리비	30,000	20,000
단위당 원가 계	165,000	195,000

㈜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,700시간이다. ㈜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,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, 제품B 400개이다. ㈜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?

-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제품A 700개 | 제품B 100개 | ② | 제품A 700개 | 제품B 150개 | ③ | 제품A 700개 | 제품B 400개 |
| ④ | 제품A 250개 | 제품B 400개 | ⑤ | 제품A 325개 | 제품B 400개 | | | |

35. ㈜세무는 단일 제품C를 생산하며,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다. 20×2년 제품C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1,000개로 동일하고,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. 20×2년 제품C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, 수익발생과 현금유입 시점은 동일하며 원가(비용)발생과 현금유출 시점도 동일하다.

○ 단위당 판매가격	₩6,000
○ 단위당 변동제조원가	3,200
○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	1,600
○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	242,000 (기계 감가상각비 ₩72,000 포함)
○ 연간 고정판매관리비	206,800 (매장건물 감가상각비 ₩64,800 포함)
○ 법인세율	25%
○ 기계와 매장건물은 20×0년에 취득하였다.	

㈜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(A)과 판매량이 1,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(B)은?

	(A)	(B)		(A)	(B)
①	222단위	₩563,400	②	444단위	₩563,400
③	222단위	₩666,000	④	444단위	₩666,000
⑤	666단위	₩666,000			

36. ㈜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. 제조지시서#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, 제조지시서#2와 #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. 당기 중 제조지시서#1과 #2는 완성되었으나,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#3은 미완성이다.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. 당기에 제조지시서#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, 제조지시서#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.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구 분	#1	#2	#3	합 계
기초금액	₩450	-	-	
[당기투입액]				
직접재료원가	₩6,000	₩2,500	₩()	₩10,000
직접노무원가	500	()	()	1,000
제조간접원가	()	1,000	()	4,000

-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₩12,250이다. ② 당기총제조원가는 ₩15,000이다.
 ③ 기초재공품은 ₩450이다. ④ 기말재공품은 ₩2,750이다.
 ⑤ 당기매출원가는 ₩8,950이다.

37. ㈜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.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,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,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₩600으로 2,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.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다.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₩300(변동판매관리비는 ₩0)이며,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. A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, 사내대체 수락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.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?
- ① ₩350 ② ₩400 ③ ₩450 ④ ₩500 ⑤ ₩550

38. 부문별 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.
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여 그 방향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.
 ③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.
 ④ 단계배부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.
 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.

39. ㈜세무는 단일 제품A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, 종합원가계산방법(선입선출법 적용)을 사용한다.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,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. 제품A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, ㈜세무의 제품A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? (단,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손실은 없다.)

구 분	물 량(완성도)	구 분	직접 재료원가	가공원가
기초재공품	100개 (30%)	기초재공품	₩28,000	₩25,000
당기착수품	2,100개	당기발생원가	630,000	205,000
당기완성품	()개	계	₩658,000	₩230,000
기말재공품	200개 (40%)			

- ① ₩384 ② ₩390 ③ ₩404 ④ ₩410 ⑤ ₩420

40. 결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.
 ② 분리점판매가치법(상대적 판매가치법)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③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④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.
 ⑤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.

상 법

41.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②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③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·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⑤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법원이 한 변경처분에 불복한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.

42.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.
-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43.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②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.
-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발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44.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.
-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.
- ③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-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.
- 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여야 한다.

45.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
- ②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
- ③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
- ④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
- ⑤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

46.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.
- ②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.
- ④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.
- 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,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47.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는 주주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8.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여도 이사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
- ④ 대표이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.
- 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49.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.

50.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회사(이하 “집행임원 설치회사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.
-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·해임권한이 있다.
-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⑤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집행임원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51.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 ㄴ.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 ㄷ.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 ㄹ.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ㄷ, ㄹ

52. 이사가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.
 ㄴ.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내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 ㄷ.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 ㄹ.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ㄱ, ㄴ, ㄹ
 ④ ㄱ, ㄷ, ㄹ ⑤ ㄱ, ㄴ, ㄷ, ㄹ

53. 상법상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기간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?

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때 회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()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()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.

- ① 20일, 2개월 ② 20일, 3개월 ③ 1개월, 1개월
 ④ 1개월, 2개월 ⑤ 1개월, 3개월

54.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.

55.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회사의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받을 자의 성명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, 상속은 가능하다.
- 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

56. 상법상 주식회사가 배당가능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
-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
-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

57.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.
- ②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.
-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④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1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58. 상법상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.
-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④ 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부를 선의(善意)로,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그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.
- 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(入質)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.

59.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.
-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
- ③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- ④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.
-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일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.

60.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결손의 보전(補填)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- ②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제기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.
- ③ 사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- ④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·이사·감사·청산인·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(訴)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61.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설립시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다.
-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.
-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(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)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.
-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-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.

62.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으나 이익준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주식배당 및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
- ④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.
- ⑤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63.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.
- ④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,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중간배당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.

64.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.
-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사채권자집회에서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금액의 합계액 (상환받은 액은 제외함)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.
-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따른다.
- 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
65.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.
-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
- 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66.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회사가 해당营业을 양수하려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.
-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를 받은 회사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.
- ③ 영업을 양도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,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에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를 한다는 뜻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무의결권 주식의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67.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변경으로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.
-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달리 포괄적 이전은 간이주식이전, 소규모 주식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·이사·감사·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68. 상법상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이 아닌 것은?

- ① 대표소송권
- ② 집중투표청구권
- ③ 청산인 해임청구권
- ④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
- 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청구권

69. 상법상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이며,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모회사이며, D 주식회사는 A, B, C 주식회사와 모자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B회사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.
- ② C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③ B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B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B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④ C회사와 D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C회사는 D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B회사의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D회사 일부가 분할되어 C회사와 합병하여 C회사가 존속하고 D회사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 C회사는 D회사 일부의 주주에게 A회사 주식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.

70.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합병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합병회사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병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신설이 본점에 등기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② 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도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부담한다.
- 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71.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,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법정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.
- ⑤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72.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된 무효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?

- ① 감자무효의 소 ② 합병무효의 소 ③ 분할무효의 소
- ④ 설립무효의 소 ⑤ 주식이전무효의 소

73.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.
- ② 간이영업양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간이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.
- ③ 사적자치에 기초해 합병계약서에 정한 합병비율이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.
-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,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.
- 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있다.

74.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유한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자본금 총액이 20억원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은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.
- ③ 유한회사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유한회사의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의 선임을 위해 회사성립 전에 각 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.

75.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다.
- ③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.
- ④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그 책임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.
- 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, 그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책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.

76.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②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설립의 무효는 이사,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
- ⑤ 설립취소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77.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합명회사 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가입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.
-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.
-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-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제한이 없는 이상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.
- ⑤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·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합명회사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78.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.
-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.
-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- ④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,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.
- ⑤ 유한책임회사의 총지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사원이어야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79.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설립무효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.
- ② 설립취소의 소는 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
- ③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.
- ④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·이사 또는 감사가 총회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.
- ⑤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80.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다.
-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.
-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.
- ④ 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.
- 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.